

만 점 의 생 각

저자 소개

조경민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서울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19 수능 당시 국어 표준점수 146점을 받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수험생으로서, 그리고 과외 선생으로서 국어를 연구하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자 책을 처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 : <http://manjum.co.kr>

위 사이트에서 정오표를 확인하시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만점의 생각 복습 자료가 제공되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오류 제보를 하실 경우 이메일(tblackone@naver.com) 혹은 카카오톡 (http://pf.kakao.com/_aLxIXs)으로 연락 주세요. 저자 혼자서 직접 읽고 답장하므로 다소 느릴 수는 있으나, 가급적 일주일 안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QR 코드



카카오톡 QR 코드



감사할 사람들

고등학교 무렵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큰 깨달음 주신 YJ 선생님
저에게 과외를 받으며, 오히려 저에게 여러 가르침을 준 수십 명의 학생들
지지해주신 부모님
연세대학교 철학과, 성남고등학교 동기들
개인적으로 큰 도움 준 MeanBo
마지막으로 '성남고 조경민'의 칼럼에 많은 호응 주셨던 오르비 유저분들,
저의 깨달음이 세상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오르비북스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재 소개 및 활용법

저는 과외와 상담, 입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기출 분석'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기출 분석을 통해 실력을 많이 키우기도 했고, 결국 수능 국어를 대비하려면 수능 국어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라고요. 이 책은 그 방법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집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웬만한 기출 분석 강의 30~50시간 분량을 압축해놓은 책입니다. 텍스트로는 말보다 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 책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교재 공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을 시간을 재고 본다. 지문당 10분 내외로 풀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해설을 보기 전에, 스스로 '모든 문장을 이해할 때까지' 지문을 읽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면 적어 두는 것이 좋다.
- ③ 채점을 한 뒤, 각 문제의 출제 근거, 의도를 파악하며 선지 하나하나 다시 분석한다.
- ④ ②에서 본인이 했던 분석과 해설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⑤ 해설과 달랐던 본인의 생각, 해설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록한다.

위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②의 '스스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기출 분석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만점의 생각』의 해설은, 학생이 스스로 한 기출 분석을 점검하기 위한 '기출 분석의 모범 답안'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공부하신다면, 아마 한 지문을 공부하는데 1시간~2시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문장을 이해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머리 아프고 피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공부가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정석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끝낼 때 쯤이면,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도와, 글을 읽는 독해력,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크게 증가하실 겁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독서)에 대한 질적인 공부는 이 책 한 권을 제대로 끝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류의 학생 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출 분석 방법을 배우고, 국어 실력 자체를 키우고 싶은 학생
- 기출을 이미 거의 다 공부했지만, 효율적으로 기출을 복습하고 싶은 학생

첫 번째 유형의 학생 분들은 제가 적어둔 공부법으로 이 책을 끝낸 뒤, 책에 수록되지 않은 기출을 이런 방식대로 푸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무렵부터 시험지 한 세트를 75분 정도를 재고 푸는 실전 연습을 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만점의 생각은 수능 전까지 계속, 꾸준히 복습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유형의 학생 분들은, 지문의 목차를 꼭 따라갈 필요 없이 본인이 헛갈렸거나, 어려웠던 지문들 먼저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학생 분들도 위의 공부법을 따르시는 것이 좋으나, 수능이 임박하여 시간이 없다면 ‘풀고-채점하고-해설 읽기’의 순서로 빠르게 복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출 분석이 충분히 된 학생들은 이 교재를 2주면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검토진 소개

- 박영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팀장
- 김민석(오르비 GIST해리케인)/광주과학기술원
- 이민창/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피램T 질답 조교
- 김성훈/연세대학교 철학과
- 한태균/연세대학교 철학과
- 김하민/연세대학교 수학과
- 김보민/연세대학교 비교문학과 문학과
- @redoublant/2022학년도 수능 95점(언매)
- 문송/서울시립대, 2022학년도 수능 95점(언매)
- 김연준/20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박소윤 (수험생 검토진)
- 설정은 (수험생 검토진)
- 김동욱 (수험생 검토진)

이 책에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검토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항상 귀한 말씀 주시고, 무료로 교재 일부를 검토해주신 『국어의 기술』 저자 이해항 선생님, 선배 저자이자 동료로서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신 『P.I.R.A.M 국어』 시리즈의 김민재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CONTENTS

서론 1 수능 국어는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서론 2 거시 독해란 무엇인가?

서론 3 기본적인 개념들

I 법/경제

- 01 2021학년도 6월 <법인세> p.24
- 02 2020학년도 수능 <BIS> p.36
- 03 2020학년도 6월 <미시/거시 건전성> p.50
- 04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p.62
↳ 2011학년도 수능 <채권>
- 05 2020학년도 9월 <점유/소유> p.80
- 06 2021학년도 9월 <행정 입법> p.90
- 07 2017학년도 9월 <사단/법인> p.100
- 08 2021학년도 수능 <예약> p.108

II 인문

- 01 2022학년도 예비시행 <동일론> p.126
- 02 2022학년도 6월 <인과> p.138
- 03 20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 p.154
↳ 2017학년도 수능 <과인/포퍼/논리실증주의>
- 04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p.176
- 05 2018학년도 9월 <LP> p.186
- 06 2021학년도 수능 <북학론> p.200
- 07 2022학년도 6월 <베카리아> p.214
- 08 2011학년도 수능 <뮤지컬> p.222
↳ 2014학년도 9월B <예술의 형식>
↳ 2021학년도 9월 <예술의 정의와 비평>

Ⅲ 과학

FACT와 주장

- 01 2017학년도 9월 <칼로릭> p.252
- 02 2019학년도 수능 <우주론> p.260
- 03 2020학년도 6월 <개체성> p.274
- 04 2016학년도 6월B <암흑물질> p.286

건조한 서술

- 05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 p.292
- 06 2016학년도 수능B <항부력> p.302

Ⅳ 기술

- 01 2020학년도 9월 <비콘> p.314
- 02 2019학년도 9월 <STM> p.324
- 03 2019학년도 6월 <키트> p.334
- 04 2021학년도 6월 <PCR> p.346
- 05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 p.358
- 06 2017학년도 6월 <퍼셉트론> p.370
- 07 2021학년도 수능 <모델링/렌더링> p.380

V 독서방법

- 01 2021학년도 6월 <주제 탐구형 독서> p.394

부록 1 비판형 문제 특강 p.400

부록 2 2022학년도 수능 분석 p.416

부록 3 이 책을 끝내고 공부할 것들 p.454

부록 4 만점의 생각 후기 및 이벤트 p.456

서론 1

수능 국어는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과거, 수능에 국어의 비중이 매우 낮고, 영어와 수학 점수로 대학을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절대평가로 교체되고, 2017학년도 평가원 시험에서 국어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2019년 수능에서는 1등급컷 84점이라는 이례적인 국어 시험이 등장했고, 비로소 국어는 입시의 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22학년도부터 ‘언어와 매체’로 출제되는 문법이나, 문학은 사실 인강 사이트의 1타~3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어떤 분의 강의를 들든 비슷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문법은 필수적인 개념만 익히고, 그것을 주어진 지문과 <보기>에 적용하여 풀면 되는 것이고, 문학은 기본적인 개념어를 숙지한 상태에서 선지를 골라내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나오는 선지가 계속 재탕되어 나오기에 기출을 통해 표현에 익숙해지고, 실전 연습을 통해 시간 관리를 하시면 비교적 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문학(독서)**은 다릅니다. 현재 수능 국어가 어렵다는 말은 곧, 수능 비문학이 어렵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비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글을 읽는 법을 공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방법론들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는 정보만 처리하면 된다, 누구는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EBS 연계는 필요 없다,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등등...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큰 논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비문학은 ‘모든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17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의 비문학은 지문이 길어지고, 정보량이 많아진 대신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정보만 잘 처리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최근 3개년의 기출 문제를 보면, 지문의 길이가 비교적 짧아진 대신 문장과 문장의 논리 관계가 매우 촘촘해지고, 문제 또한 ‘이해를 해야만’ 확실히 풀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이전과는 다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EBS 연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EBS에 수록된 지문 중, 모의고사 또는 수능과 유의미하게 비슷한 내용을 지닌 것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EBS에 나온 단어 하나를 지문에 넣어놓고 연계라고 우기는 식입니다. 배경지식의 경우,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 중 ‘베이즈주의’라든지, ‘BIS’라든지, ‘가능세계’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소재를

수험생이 애초에 알 리가 없으니 몰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제 지문에 있어 ‘환율’이라든가, 논리학 지문에서 ‘모순’이라든가 하는 기본적 개념들은 이 교재에서 기출을 풀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두었습니다.

결국 국어 비문학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독해력**과, 올바르게 생각하며 읽는 **이해력**, 지문의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 문장을 하나하나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독해력에 큰 도움이 되나, 결국은 본인이 수능 전까지 활자를 처리한 양과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부의 양은 어떤 선생님도 채워줄 수 없는, 수험생 본인의 몫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매일 비문학을 3지문씩만 읽어도, 이러한 독해력을 쌓는 데 큰 모자람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인문 지문에서 어떤 주장이 등장하면 ‘왜 그렇지?’가 떠올라야 하고, 기술 지문에서 원리가 등장하면 ‘이게 기술의 어떤 부분에 적용되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답은 전부 지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해 못해도 답은 맞힐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등급을 맞을 수도, 맞지 못할 수도 있는 실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완전한 이해** 없이 국어라는 영역에서 확실한 점수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 교재의 해설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수록된 문제를 풀고, 최소한 3번은 다시 읽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고 제 해설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문을 공부하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책에서 글을 읽으며 누적된 공부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거시독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훌륭한 비문학 저자들은 글에서 한 번 쓴 단어를 다시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은 어미나 조사, 접속사를 자주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유명사나 전문 용어조차도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사전적 의미는 다르나 문맥상 동의어인 단어들로 치환하여 계속해서 재진술을 하는 것인데 거시독해는 이런 단어들을 Chunking(덩어리짓기)하여 수백 개의 단어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는 독해를 말합니다. 뭘 애긴지 감이 안 잡힐 테니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종합 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심오한 지적, 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2011 수능 언어영역 23번 <보기>-

보기형 문제였지만, 미시독해와 거시독해가 완벽하다면 사실 <보기>만 읽고도 답이 나옵니다.

우선, 그리스 비극과 근대의 오페라가 대비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음악 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물론 예술의 내적 요소는 수능이나 사설, EBS에 종종 출제된 개념이니 배경지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장 안에서는 그걸 몰라도 '형식적 측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보기>를 제가 읽는 방식대로 바꾸어서 써보겠습니다.

종합 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어떤가요? 거시독해가 되면 내용을 한 층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량도 줄어듭니다.

머리 속에서 내용이 정리되어 훨씬 간결한 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지문 첫 문단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보이시나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는 '내용적 구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외적 연관'입니다. 다 어려운 용어 들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독해가 되는 사람은 주어지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그 개념을 둘러싼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문을 완전히 흡수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문의 첫 줄, 첫 문단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독해 능력에 압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능이 아닌 다른 언어 시험에서도 이러한 청킹이 사용됩니다. 2013 PSAT의 첫 두 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 학습 시스템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정형화된 규칙에 한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매우 큰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필요로 하는 '유연성'은 무엇인가요?

'유연성' = '자기 주도적'입니다. 두 단어 다 모르기 힘든 용어이나 '유연성'이 '자기 주도적'의 문맥상 동의어이며 단순한 재진술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문장들에서 개념 간의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글에서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 '거시독해'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잇고, 문단과 문단을 이어서, 지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의미 덩어리로 흡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교재의 해설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저술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 하나를 잡고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고, 개념들 간의 의미 관계를 확실히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예시이자, 정답으로 생각하시고, 거시독해의 방법을 체화하셔서 이 교재 밖의 다른 지문들, 그리고 본인이 시험장에서 만날 글들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법인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

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A]

01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02 디지털세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 ‘㉑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㉔고 할 수 있으므로 ㉑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04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05 문맥상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01	02	03	04	05
②	⑤	④	③	③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이라는 상위의 범주 아래에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획득하면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ICT 산업**은 이런 지식 재산들을 기반으로 창출된다고 합니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지식 재산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이용하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진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과세에 대한 것일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더불어’ 뒤에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하면서 읽어야 하지만, 사후적으로 본다면 ‘지식 재산 보호 문제’도 지문 마지막 문단에 다뤄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원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얘기인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의 내용을 보고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죠**. 이 문장을 왜 준 건지 다음 문장을 통해 파악해봅시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이윤(수입-제반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디지털세는 이런 법인세가 줄어드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 거고요. ‘수입-제반 비용’에서 걷는 세금(법인세)이 적어지니까, **제반 비용을 빼지 않고 그냥 수입에 세금(디지털세)**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걸 캐치했다면 다음의 내용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이 ‘이윤’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기면서 **법인세를 회피**합니다. 그 과정을 쫓 따라가봅시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Q.1 로열티가 뭐죠?

A.1 제반 비용입니다. B국의 자회사에서 로열티를 지출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윤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수입-제반 비용'으로 계산되는 이윤을 줄이려면, 수입을 줄이거나 제반 비용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기 싫어서 수입을 줄인다는 건 상식에도 배치되고, 돈을 쓰는 상황이니, 로열티를 지출하는 것이 제반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곤 바꾸어 읽을 수 있죠.

이 지문 전체를 이해했냐 못했냐의 포인트는,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차이', '로열티의 지문 내 의미' 이 둘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B국에서는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제반 비용을 지출하고, 이게 A국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놓치지 않고 읽었다면 거의 다 했습니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그런데 ICT 다국적 기업들이 위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그 해결책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세의 도입이 자국의 산업 주도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마지막 문단 [A]에서는 앞선 세금 문제와는 조금 다른, 지식 재산의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ICT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은 지식 재산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지식 재산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식 재산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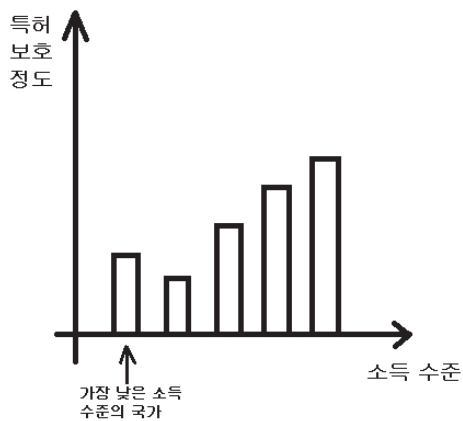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해져도, 강해져도 나름의 단점이 있네요. 보호의 적당한 정도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유인이 저해되는 것을 유인 비용, 접근이 막히는 것을 접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합한 것이 최소가 될 때가 가장 적절한 지점입니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에서는 국민 소득과 특히 보호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꼴찌보다 조금 더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오히려 꼴찌 수준의 국가보다 특히 보호가 약하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되겠네요.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 그래프가 전달하는 느낌 정도는 읽으면서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정답 : ②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는데, 그런 조건이나, 그 조건이 인정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해설

- ①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의 하위 개념입니다.
- ③ '법인세 감소'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 때문에, **해결책**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 ④ **로열티는 제반 비용**이고, 이 제반 비용을 키움으로써 **이윤(수입-제반 비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감소하는 것이죠.
- ⑤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최적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02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정답 : ⑤

'수입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설

- ① 지식 재산 보호는 '법인세 감소'라는 문제 상황과는 별개의 주제이고, 지문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의 수단도 정확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 ② '수입에 부과'됩니다.
- ③ ICT 산업에 주도적인 국가는 오히려 주도권 유지를 위해 도입에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 ④ 지문에는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만 나왔지, '디지털세'를 줄이는 방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디지털세를 줄이는 방법은 수입 자체를 줄이는 것 외에는 딱히 추론 가능한 것이 없네요.

03 <보기>는 밑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㉞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 ‘㉞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㉞고 할 수 있으므로 ㉞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보기> 해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지문에서는 B국)에서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수입-제반 비용)이 낮다는 가설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가 **제반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 : ④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인다는 것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제반 비용(로열티)’**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문의 ㉞이 이뤄지는 과정이죠.**

해설

- ① ‘수입’이 커지는 것은 논점이 아닙니다. ‘이윤’이 적어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 ②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 ③ 수입 대비 제반 비용(로열티)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지출한 제반 비용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게는 수입이 되죠.
- ⑤ 지문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는 로열티를 지출할 일이 없으니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04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정답 : ③

지식 재산 보호의 수준이 낮아지면 접근 비용은 작아집니다.

해설

- ① 주도적인 국가들은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원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유인 비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죠.
- ②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유인 비용)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심해집니다.
- ④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참고해보세요.
- ⑤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유인 비용)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접근 비용)는 증가합니다.

05 문맥상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정답 : ③

B국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면, A국이 아니라 B국의 이윤을 줄여야 합니다.

해설

- ① 전체적으로 Z사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은, B국이 지출하는 제반 비용**입니다. 따라서 ㉔의 과정에서 로열티(제반 비용)를 많이 지출할수록 A국의 자회사의 수입은 커지겠죠.
- ④ B국의 자회사에서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낮추면서,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최소화하죠.
- ⑤ 로열티를 지출한다는 게, 제반 비용을 늘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수입-제반비용'으로 계산되는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